

모녀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tyle and Efficiency of Mothers' and Their Married Daughters

전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지금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계선자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bug National Univ.

Prof. : Chi, Keum Soo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 : Kye, Sun 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결과 및 논의 |
| III. 가설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mother's influence in married daughte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tyle, and efficiency and the related factors in i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χ^2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hierachical regress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acquired:

1) The styles of the mothers' family resource management were in the rank of the seperated, the task-centered, the person-centered and the integrated.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re was, according to sex-role attitudes.

2) The styles of married daughters' family resource management were in the rank of the seperated, the integrated, the person-centered and the task-centered. Among

demographic variables, only level of education was significant.

3) Similarity was shown in the mothers' and their married daughters' family resource management styles.

4) The married daughter's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was influenced by accordance of residence, and her own management styles.

I. 서 론

가정생활의 향상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등 가정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관리자가 지식, 능력, 기술, 노동력 등과 같은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정생활의 질이 좌우된다(서병숙, 임정빈, 1983).

가정의 기능과 유형은 시대의 변천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가정자원관리의 주 담당자는 여성이었고, 오늘날도 그 책임은 주로 주부에게 있다. 편리한 기기와 설비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기대가 보다 높아졌으며, 가족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게 되어 가정자원관리 담당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중 가정은 최초의 사회 공동체이며 사회화의 태도, 가치 및 습성등을 습득하는 곳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중에서도 딸은 아들보다 가정교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정중희, 1984). 그리고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능력이 딸의 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지금수, 1990). 이처럼 딸은 성장과정중 가정생활에서 어머니와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기혼딸을 출가외인으로 생각하던 전통적 한국사회와 달리 오늘날은 점차로 출가한 기혼딸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어 가정관리에 대한 어머니와 기혼딸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과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효율

성의 관련성을 조사·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태도에 따라 어떤지 알아보고 그들의 상호 관련성을 밝힌다.

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태도, 어머니와 자신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자원관리 유형

가정자원관리는 가족의 욕구충족 및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자원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도록 계획하고 수행하는 행동(최동숙, 1991)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정자원 관리자의 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과정이론(process theory)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정자원관리 행동을 여러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 행동을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체계와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체계의 형태, 구조상태를 유지 또는 보존하려는 안정지향형과 보다 발전시키려는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Buckley, 1967)

다른 하나는 가정자원 관리자가 자원을 조직하고 계획을 실행할 때 목표를 인간지향적인 것에 두어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는 일 중심으로 능률이나 기술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관리유형이 달라지게 된다(장명옥, 1985)는 관점에서 가정자원 관리자의 관리행동을 과업-인간중

심 관리행동 유형으로 구분한다.

과업-인간지향 관리유형의 연구들은 McGregor(1960)의 XY이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McGregor(1960)는 『The Human Side of Enterprise』를 통해 기업에서 전문 경영자는 우선 자신의 참모습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X관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Y관의 입장에서 다루었다. 또한, Fiedler(1967)는 리더십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해 과업지향적 지도자(task-oriented leader)와 인간관계지향적 지도자(relation-oriented leader)로 양분하여 일차적 모형을 세웠다.

Reddin(1970)은 3차원적 관리자 유효성 모형을 개발했는데, 기본적인 관리자 유형을 통합형(integrated style), 헌신형(dedicated style), 관련형(related style), 분리형(separated style)의 4가지로 보고 이 네 기본 유형들이 각각 상황의 적합 여부에 따라 효과적인 유형 4가지와 비효과적인 유형 4가지를 더 갖게 된다고 보았다.

Nichols(1964)는 가사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협조 및 자원수준에 대한 결과와 조직화 유형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2개의 극단적인 조직화 유형을 가정하였다. 그 하나는 과업 수행자에 대한 과업의 정서적 질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적 결과에 중점을 둔 과업지향적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과업을 과업 수행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지향적 유형이다.

과업 및 인간지향 관리유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임정빈(1988), 채옥희(1988) 등의 연구가 있다. 임정빈(1988)은 의사결정의 양식을 인간지향적, 과업지향적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채옥희(1988)는 가사작업 관리유형을 통합형, 관련형, 헌신형, 분리형으로 구분하고 가사작업 관리상 하위영역인 조직화를 유효성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가사작업의 관리 특성은 과업중심 지향적으로 나타났고, 가사작업 관리자 유형은 통합형, 헌신형, 관련형, 분리형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자원관리 효율성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경제학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최대의 효율성, 즉 특정 투입 수준에서 최대의 유용한 산출 획득으로 어떤 고정된 자원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측면과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Sproles, 1986).

Fitzsimmons와 Williams(1973)에 의하면 효율성은 보통 가정경제에 있어서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의 사용에 관한 활동으로 묘사되어 사용된다고 보고 투입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얻기 위한 자원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원 투입의 증감과 산출의 증감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3가지 효율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즉 효율성은 동일한 산출을 얻는데 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최소로 줄이는 것과 자원의 투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출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자원의 투입을 줄이면서 산출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산출(성취된 결과)을 투입(원하는 것과 사용가능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Deacon & Firebaugh, 1981).

그러나 Deacon과 Firebaugh(1981)는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유사한 자원을 가진 어떤 특정 가족이 왜 다른 가족에 비하여 더 많이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적인 과정 즉 통과 과정(Throughputs)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투입과 산출만을 연구하고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행동 단위의 내막을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블랙박스(통과 과정의 알려지지 않은 면을 나타내는 용어) 행동과학의 치명적인 한계를 우려하면서 개인과 가족들은 관리적 체계를 통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보고 통과과정 즉 관리적 하위체계를 강조하여 가족체계를 도식화하였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은 산출을 투입과 비교함으

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효율성의 원인을 분석하는데는 단순한 비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투입에서 산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적인 과정이 고찰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어머니와 딸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상관성

가족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가족구성원간의 대화 및 협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체계라 할 수 있다.

금세기 이래 가족에게 일어난 현저한 변화, 즉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원간 접촉의 감소, 취업모의 증가, 자녀양육 방법의 변화, 가족문제의 다양화 등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와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지만(김경신, 1989) 그러나 여전히 지식획득의 최초의 장이고 가장 친밀하고 오랜기간의 개인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딸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illar(1961)는 3세대에 걸친 가족원의 가치관은 세대에서 세대로 면면히 전해지며, 가정관리 패턴은 이전 세대의 관례보다는 자신들 세대의 관습에 따라 더 좌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 에너지, 돈, 기술 등 여러 종류의 자원 가운데 기술자원관리는 3세대간에 어떤 공통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딸이 어머니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복남(1987)은 여고생의 가사능력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집안일을 돕는 정도가 많은 집단의 가사능력이 높았다고 하며, 또한 지금수(1990)는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이 다른 여러 변인들 보다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4. 관련 변인

1) 연령 : Nichols(1964)는 주부의 연령은 전체 조직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임

정빈(1988)은 연령이 30대와 40대일때 인간지향적 의사결정을 하며, 20대와 50대 이후에는 다시 과업지향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옥희(1988)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통합형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련형, 헌신형, 분리형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관련형이 많았고 다음이 통합형, 헌신형, 분리형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 사회경제적 지위 :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남편의 직업, 소득과 학력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남편의 직업, 소득과 학력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Price(1973)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간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Eigesti(1973)는 가치성향과 과업 및 인간중심 의사결정의 분석에서 하류계층의 주부는 대부분 운명론적이며 과업지향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정빈(1988)은 남편의 직업이 판매, 서어비스직인 집단과 전문직인 집단이 인간지향적인 의사결정 양식을 택하며, 생산직, 농공업 집단인 경우에 과업지향적인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3) 교육수준 : 채옥희(1988)는 교육수준에 따라 관리자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중졸 이하)와 높은 주부(전문대 이상 졸업)집단에서는 관련형이 가장 많으며 통합형, 헌신형, 분리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졸집단은 통합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관련형, 헌신형, 분리형의 순이었다.

4) 자녀 수 : 채옥희(1988)는 관리자 유형이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자녀수가 1~2명인 집단이 통합형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관련형, 헌신형, 분리형의 순이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주부 집단은 관련형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통합형, 헌신형, 분리형으로 나타났다.

5) 거주지 일치도 : 거주지 일치도는 어머니와 기혼딸의 거주지간의 거리가 가깝고 먼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거주지 일치도를 어머니와 기혼딸이 같은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다른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어머니와 기혼딸의 거주지 일치도와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효율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어머니와 기혼딸이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서로 왕래가 빈번하고 의사소통 및 응집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능력이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능력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6) 직업유무 : 취업주부는 이중역할로 인한 시간부족을 보상하려고 가정자원관리 전반에 과학화, 능률화를 도모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한다(Kessel, 1964)고 한다. 그러나 이정우(1980)는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정관리 성취도에 있어 높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어떠한지 밝혀 보고자 한다.

7) 성역할 태도 : 어머니와 기혼딸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가 직업 선택(Hoffman, 1977)이나 결혼만족도(박태은, 1983)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Ⅲ. 가설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본 가설 설정에서 채택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 거주지 일치도, 교육수준, 직업유무 등이다.

연구문제 I.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I-1.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3.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II.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어떠한가?

가설 II-1.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II-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II-3.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자신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1) 가정자원관리 유형 척도

McGregor(1960), Nichols(1962), 채옥희(1988), 최동숙(1991)의 척도를 참고로 32개 문항을 작성하여 1차,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요인 각각 6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내적일치도 방법으로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α 값은 각각 $\alpha=.71$, $\alpha=.64$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Reddin(1970)과 채옥희(198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을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즉, 인간중심적 차원과 과업중심적 차원을 중앙치를 중심으로 점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인간중심적 차원의 중앙치는 22점, 과업중심적 차원의 중앙치는 17점이었고, 기혼딸의 경우는 각각 26점, 17점이었다. 이렇게 하여 분류된 가정자원관리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통합형: 인간중심적 차원의 점수와 과업중심적 차원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
- ② 인간중심형: 인간중심적 차원의 점수가 높고, 과업중심적 차원의 점수는 낮은 집단
- ③ 과업중심형: 인간중심적 차원의 점수가 낮고, 과업중심적 차원의 점수는 높은 집단
- ④ 분리형: 인간중심적 차원의 점수와 과업중심적 차원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

2) 가정자원관리 효율성 척도

Nickell 등(1976)에 의한 자원의 분류를 토대로 가정자원관리의 대상을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환경적 자원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법은 비효율적인 경우 0점부터 매우 효율적인 경우 10점까지 11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공교수 5인에 의해 내용을 검토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는 내적일치도법에 의거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alpha=.84$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성역할 태도 척도

Brogan과 Kutner(1976)와 정종희(1984), 박미령(1988)의 연구에서 총 12개 문항을 선별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문항이 채택되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alpha=.72$, 기혼딸의 경우 Cronbach's $\alpha=.66$ 으로 나타났다. 응답방법은 5점 리커트척도방식을 채택하였으며, 23점 이상인 경우 근대적 집단으로, 18~23점을 중립적 집단으로, 17점 이하인 경우 전통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의 처리

1992년 5월 11일~19일에 15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제 1 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한 후 1992년 5월 25일~6월 9일에 어머니와 기혼딸 174쌍을 대상으로 제 2 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척도를 재구성하여 본조사는 887쌍의 어머니와 결혼한 기혼딸을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8월 10일에 실시하였다. 이중 764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한 대상은 633쌍이었다.

설문조사는 어머니와 기혼딸에게 동시에 실시하였고, 무작위 선별에 의한 대상선정이 매우 곤란하므로 편의적 표본 추출을 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전북지역에 치우치게 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중앙치, χ^2 검증, 중다회귀분석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V.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2. 가설검증

1)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분석

(1)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분리형 35.5%, 과업중심형 22.7%, 통합형 21.4%, 인간중심형 20.4%로서 분리형이 가장 많았다.

채옥희(1988)는 응답주부의 가사노동 관리자 유형은 통합형이 32%로 가장 많았고, 인간중심형 29%, 과업중심형 22%, 분리형 17% 순이었다고 밝혀 본 연구에서 분리형, 과업중심형이 많은 분포를 보인 것과는 달리 통합형, 인간중심형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가설 I -1>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성역할 태도가 중립적인 집단에서는 분리형이 41.9%로 가장 높았고, 근대적인 집단도 분리형 집단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인 집단은 과업중심형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를 가정자원관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형과 인간중심형인 경우는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 집단이 각각 25.3%, 21.4%로 가장 높았으며,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어 머 니		기 혼 딸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연 령	44-49세	28 (4.5)	20-29세	173 (27.8)
	50-59	282 (45.0)	30-39	311 (49.3)
	60-69	222 (35.5)	40-49	120 (19.1)
	70세이상	94 (15.0)	50세이상	24 (3.8)
	계	626 (100.0)		628 (100.0)
남 편	유	417 (69.5)		615 (97.8)
	무	183 (30.5)		14 (2.2)
	계	600 (100.0)		629 (100.0)
자 녀 수	0-1명	231 (38.3)		212 (34.7)
	2명	149 (24.7)		255 (41.7)
	3명이상	223 (37.0)		144 (23.6)
	계	603 (100.0)		611 (100.0)
거 주 지	서울·경기	211 (33.9)		265 (42.2)
	전라북도	334 (53.4)		323 (51.4)
	기 타	79 (12.6)		41 (6.6)
	계	625 (100.0)		629 (100.0)
거 주 지 일 치 도	불일치	62 (10.3)		62 (10.3)
	일 치	541 (89.7)		541 (89.7)
	계	603 (100.0)		603 (100.0)
가 정 의 월 수 입	90만원 미만	186 (30.0)		123 (19.4)
	90-170만원미만	233 (38.2)		273 (43.1)
	170만원 이상	191 (31.3)		237 (37.4)
	계	610 (100.0)		633 (100.0)
사 회 경 제 적 지 위	하	205 (34.6)		29 (4.7)
	중	244 (41.1)		268 (43.0)
	상	144 (24.3)		326 (52.3)
	계	593 (100.0)		623 (100.0)
남 편 의 직 업	전문·행정관리직	114 (27.3)	좌동	279 (45.1)
	사무직	52 (12.5)	좌동	181 (29.6)
	판매·숙련직	72 (17.3)	기타	158 (26.2)
	농업·기타	178 (42.9)		
	계	416 (100.0)	계	622 (100.0)
본 인 의 직 업	유	98 (16.2)		273 (44.9)
	무	506 (83.8)		335 (55.1)
	계	604 (100.0)		608 (100.0)
남 편 의 교 육 수 준	국졸이하	75 (18.0)	중졸이하	15 (2.4)
	중·고졸	206 (49.3)	고졸	128 (20.6)
	전문대이상	136 (32.5)	전문대이상	479 (77.0)
	계	417 (100.0)	계	622 (100.0)
본 인 의 교 육 수 준	국졸이하	376 (56.0)	중졸이하	43 (6.9)
	중졸	103 (16.6)	고졸	243 (38.7)
	고졸이상	170 (27.4)	전문대이상	342 (54.4)
	계	619 (100.0)	계	628 (100.0)

* 사회 경제적지위는 남편의 직업, 소득, 학력을 합산하여 3-5점: 하집단, 6-7점: 중집단, 8-9점: 상집단으로 분류한 것임.

* 무응답의 빈도에 따라 전체 사례수는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표 2〉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대한 χ^2 검증

()는 백분율임

독립변인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χ^2 값 및 유의도
	범주	통합형 빈도(%)	인간중심형 빈도(%)	과업중심형 빈도(%)	분리형 빈도(%)	계	
연 령	55세이하	29(22.1)	22(16.8)	36(27.5)	44(33.6)	131	$\chi^2 = 4.57$ df = 6 n.s
	56~64세	66(22.5)	56(19.1)	64(21.8)	108(36.7)	294	
	65세이상	33(19.2)	41(23.8)	36(20.9)	62(36.1)	172	
자 녀 수	0~1명	52(22.5)	47(20.4)	44(19.1)	88(38.1)	231	$\chi^2 = 9.01$ df = 6 n.s
	2명	27(18.1)	34(22.8)	30(20.1)	58(38.9)	149	
	3명이상	50(22.4)	42(18.8)	63(28.3)	68(30.5)	223	
사 회 경 제 적 지 위	下집단	34(17.3)	34(17.3)	45(23.0)	83(42.3)	196	$\chi^2 = 9.73$ df = 6 n.s
	中집단	53(22.6)	43(18.8)	58(24.8)	80(34.2)	234	
	上집단	32(23.9)	34(25.4)	27(20.1)	41(30.6)	134	
직 업 유 무	유	21(23.6)	22(24.7)	18(20.2)	28(31.5)	89	$\chi^2 = 2.30$ df = 3 n.s
	무	104(21.4)	92(18.9)	114(23.4)	177(36.3)	487	
교 육 수 준	국졸이하	62(18.7)	59(17.8)	81(24.5)	129(39.0)	331	$\chi^2 = 8.92$ df = 6 n.s
	중졸	24(24.0)	20(20.0)	21(21.0)	35(35.0)	100	
	고졸이상	39(24.7)	40(25.3)	33(20.9)	46(29.1)	158	
거 주 지 일 치 도	불일치	9(14.5)	13(21.0)	18(29.0)	22(35.5)	62	$\chi^2 = 2.75$ df = 3 n.s
	일치	120(22.2)	110(20.3)	119(22.0)	192(35.5)	541	
성 역 할 태 도	전통적	36(21.2)	36(21.2)	51(30.0)	47(27.7)	170	$\chi^2 = 14.11$ df = 6 P < .05
	중립적	53(19.5)	53(19.5)	52(19.1)	114(41.9)	272	
	근대적	39(25.3)	33(21.4)	31(20.1)	51(33.1)	154	

* 사회경제적 지위 : 下집단(3~5점), 中집단(6~7점), 上집단(8~9점)

과업중심형인 경우는 전통적 집단이 30.0%로 가장 높았고 분리형인 경우는 중립적 집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I-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분리형 39.6%, 과업중심형 23.1%, 통합형 20.3%, 인간중심형 17.0%로서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형이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 집단에 비해 과업중심형이 약간 많았으며, 인간중심형과 통합형은 다소 적게 분포되었다.

〈가설 I-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과 같이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자녀 수,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유무, 거주지 일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에 따른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중졸 이하 집단인 경우에 분리형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과업중심형이었으며, 고졸 집단인 경우 분리형의 분포가 높았으나 다음이 인간중심형

〈표 3〉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대한 χ^2 검증

()는 백분율임

독립변인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χ^2 값 및 유의도
	범주	통합형 빈도(%)	간중심형 빈도(%)	과업중심형 빈도(%)	분리형 빈도(%)	계	
연 령	30세이하	51(29.5)	37(21.4)	23(13.3)	62(35.8)	173	$\chi^2 = 9.10$ df = 6 n.s
	30~39세	80(26.6)	80(26.6)	45(25.0)	96(31.9)	301	
	40세이상	34(25.2)	28(20.7)	32(23.7)	41(30.4)	135	
자녀수	0~1명	60(28.3)	55(25.9)	34(16.0)	63(29.7)	212	$\chi^2 = 11.12$ df = 6 n.s
	2명	65(25.5)	59(23.1)	33(12.9)	98(38.4)	255	
	3명이상	40(27.8)	32(22.2)	33(22.9)	39(27.1)	144	
사 회 경제적 지 위	下집단	7(25.9)	6(22.2)	4(14.8)	10(37.0)	27	$\chi^2 = 6.76$ df = 6 n.s
	中집단	67(25.7)	56(21.5)	39(14.9)	99(37.9)	261	
	上집단	87(27.8)	82(26.2)	56(17.9)	88(28.1)	313	
직 업	유	77(29.3)	69(26.2)	40(15.2)	77(29.3)	263	$\chi^2 = 3.81$ df = 3 n.s
	무	84(25.9)	70(21.6)	57(17.6)	113(34.9)	324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9(21.4)	4(9.5)	9(21.4)	20(47.6)	42	$\chi^2 = 19.38$ df = 6 P < .01
	고졸	49(21.2)	54(23.4)	40(17.3)	88(38.1)	231	
	전문대이상	106(31.8)	86(25.8)	50(15.0)	91(27.3)	333	
거주지 일치도	불일치	15(25.0)	17(28.0)	8(13.3)	20(33.3)	60	$\chi^2 = 1.03$ df = 3 n.s
	일치	150(27.2)	129(23.4)	92(16.7)	180(32.7)	551	
성역할 태 도	전통적	30(16.8)	25(14.0)	44(24.6)	80(44.7)	179	$\chi^2 = 6.14$ df = 6 n.s
	중립적	51(22.7)	37(16.4)	54(24.0)	83(36.9)	225	
	근대적	40(20.2)	40(20.2)	42(21.2)	76(38.4)	198	

이었고, 전문대졸 이상 집단은 통합형의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분리형이었는데 고졸 집단보다는 낮은 분포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집단은 분리형이 적고 통합형이 많았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이면서 과업중심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가정자원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은 여성교육의 효과로 보여진다.

채옥희(1988)는 교육수준이 낮거나(중졸 이하) 높은 집단(전문대졸업 이상)에서는 인간중심형이 가장 많았고, 고졸 주부집단은 통합형이 많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얻었다. 한편, 임정빈(1988)은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성역할 태도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I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가설 I -3〉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통합형인 경우, 기혼딸도 통합형의 유형을 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어머니가 인간중심형, 과업중심형, 분리형인 경우에도 기혼딸이 각각 인간중심형, 과업중심형, 분리형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과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표 4〉 모녀간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대한 χ^2 검증

기혼딸\어머니	통합형	인간중심형	과업중심형	분리형
통합형	38(30.7)	19(16.1)	30(22.7)	31(14.8)
인간중심형	24(19.4)	35(29.7)	17(12.9)	25(12.0)
과업중심형	32(25.8)	23(19.5)	44(33.3)	37(17.7)
분리형	30(24.2)	41(34.7)	41(31.1)	116(55.5)
계	124(100.0)	118(100.0)	132(100.0)	209(100.0)

$\chi^2 = 60.44$ $df = 9$ $P < .001$

유형간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I-3〉은 채택되었다.

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 분석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평균점수가 79.08(65.9%)점으로서 상당히 높았다.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태도, 가정자원관리유형 및 어머니

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인군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다섯 독립변인군중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모델 3〉인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으로 두 독립변인군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5.0%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모델 3〉의 설명력은 10.7%이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의 영향

〈표 5〉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연령@	.12	.06	.14	.07	.17	.09
사회경제적 지위@	-.44	-.03	-.39	-.03	-.46	-.04
자녀수@	.45	.03	.31	.02	.04	.00
거주지 일치도@	-5.22	-.16**	-5.46	-.16**	-4.85	-.15**
교육수준@	.57	.10	.52	.09	.42	.08
직업유무@	1.15	.04	1.19	.04	.85	.03
성역할태도@	-.20	-.07	-.20	-.07	-.26	-.09
통합형#			4.23	.12*	2.55	.08
인간지향형#			1.72	.05	.49	.14
과업지향형#			.32	.01	-.01	-.00
통합형@					6.89	.23***
인간지향형@					6.51	.21***
과업지향형@					.98	.03
상수	77.78		77.01		76.17	
R ²	.043*		.057**		.107***	
R ² 증가량			.014		.050***	

* $P < .05$ ** $P < .01$ *** $P < .001$

#는 어머니, @는 딸에 해당하는 것임.

b: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표준화 회귀계수

〈가설 II-1〉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모델 3〉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거주지 일치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변인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기혼딸의 거주지역이 가까울 때는 교통이 편리하여 자주 왕래를 하게 되므로 생활에서 어려운 일은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의뢰하여 독립적으로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의타심만 증가하게 되어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낮아지게 되고, 어머니와 기혼딸의 거주지역이 멀수록 오히려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II-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영향

〈가설 II-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면 앞에서 살펴본 〈표 5〉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모델 2〉에서는 통합형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3〉에서는 사라졌다. 즉 〈모델 2〉에서는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통합형 집단일때 분리형 집단보다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을 통제했을 때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따라서 〈가설 II-2〉는 기각되었다.

(3) 기혼딸 자신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영향

〈가설 II-3〉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은 자신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모델 3〉에서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 1〉과 〈모델 2〉의 두 독립변인군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5%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모델 3〉에서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을 통제할 경우 그 효과가 사라져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II-3〉은 채택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정자원관리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합형, 낮을수록 분리형이 많았으므로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정자원관리 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다.

4)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또한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통합형이나 인간중심형인 경우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가정자원관리 유형이 기혼딸에게 전수되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전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생활 교육이 강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인 주부에게는 개방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자원관리의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가정자원관리 효율성의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통합형 가정자원관리 유형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인간지향적이면서 과업지향적인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 - 교육과 직업에 관한 가치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 김복남, “여고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연구—서울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 박미령,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성역할 태도와 주관적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4) 서병숙·임정빈, 『가정관리학』, 서울:동명사, 1983.
- 5)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6) 정종희,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 장명옥·가정관리학, 서울:교문사, 1985.
- 8) 지금수,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통권83호), 1990, 155-176.
- 9) 채옥희, “가사노동의 조직화 및 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한국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0) 최동숙, “가정자원 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11) Brogan, D., & Kutner, N. G.,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976, 31-40.
- 12) Bu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7.
- 13) Deacon, R. E., & Firebaugh, F. M.,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Allyn & Bacon, Boston, 1981.
- 14) Eigesti, M.H., *Interrelationships of value orientation decision-Making and decision-implementing style of selected low socio-economic status black homemaker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3.
- 15) Fiedler, F. E.,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New York : McGraw-Hill, 1967.
- 16) Fitzsimmons, C., & Williams, F., *The family economy : Natureand management of resource*, Michigan : Edwards Brothers, 1973.
- 17) Hoffman, L. W.,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Aug., 1977, 644-53.
- 18) McGregor, D.,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New York : McGraw-Hill, 1960.
- 19) Millar, Ramelia Lott, “Home management pattern of three gener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2), 1961, 95-99.
- 20) Nichols, A., *Person-oriented, task-oriented styles of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4.
- 21) Nickell, P., Rice, A. S., & Tucker, S. P.,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ed., John Wiley & Sons, Inc., 1976.
- 22) Price, D. Z., *Relationship of decision styles and self actualiz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Sep., 1973, 12-20.
- 23) Reddin, W. J., *Managerial effectiveness*, McGraw-Hill, Kogahusha, 22-23, 1970, 230.